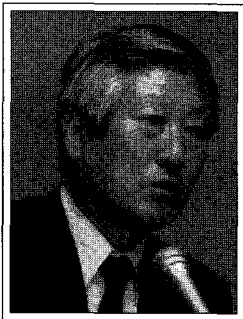




원자력의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참여 기대

방 국 진

대회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대행



“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집단 이기로 인해 신규 원전의 건설 입지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참여를 기대합니다.

”

존 경하는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회 연차대회를 맞이하여 대회장으로서는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 국제 원자력계 대표를 비롯하여 국내외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사이토 신조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 겸 일본원자력학회 회장님, 강 리신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사장님, 레리 폴크 미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케오르 그 루카치우 루마니아원자력산업회의 회장님, 디디에 케셔메 프랑스원자력청 국제협력 부국장님, 그리고 그 밖의 외국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금년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선포한 지 반 세기가 지나 는 해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비전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계의 희망과 비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본 연차대회의 주제를 「복지 사회를 위한 원자력 : 아

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 비전 선언 제2 반 세기에 들어서면서」로 정하였고, 그간 세계 원자력계의 발전을 자축하고 최근의 원자력의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상업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총1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중 한국표준형원전인 울진 5·6호기가 승인을 얻어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2003년에는 국내 가동 원전 평균 이용률 94.17%에 달하며, 특히 고리 3호기, 울진 3호기와 영광 4호기는 각각 104.8%, 104.42%, 102.93%의 이용률을 이룩하였고, 이는 세계 원전 이용률의 각각 1위, 2위와 4위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계획 정지율이 2002년과 2003년에 0.4%와 0.6%를 기록한 것은 세계 발전소 운영국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집단 이기로 인해 신규 원전의 건설 입지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참여를 기대합니다. 특히 원자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신기술의 핵연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치료, 종자 개량, 식품 보존, 비파괴 검사 등 무한한 활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 응용 기술은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로서 그 활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부문에서는 해수 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와 100메가(MeV)급의 양성자 가속 장치 개발 사업 등 2개의 대형 국제 연구 개발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선 기술 개발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어 우리 나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산업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자력 기술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이번 제19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하고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차대회장인 세라톤 워커히 호텔은 우리 나라 특급 호텔로, 국제 회의장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울창한 수목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려한 주변 경관이 절경인 호텔입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신 내빈들께서는 회의 기간 동안 주변의 만개한 꽃 등 화려한 경관과 함께 한국의 화창한 4월의 봄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원자력 기술 발전 또는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신 훌륭한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협력하여 주신 원자력계 관련 기관과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준비 위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